

격려의 메시지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찌

주교관의 작은 성당에서, 매일 아침 혼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드리는 미사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하심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절실한 마음을 느끼면서, 저 역시 간절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돌연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잃게 된 이들, 살 장소를 잃은 이들, 그럼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질병의 확대방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로 답을 청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힘을 내시라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미사 참례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질책을 받을 지도 모르겠지만, 남미 교회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형제 자매들은 모국에 있을 때는 주일 미사를 지켰던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톨릭 신자가 아주 적은 일본에 와서, 가톨릭 교회를 찾아내어 주일 미사에 참례하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기쁨을 체험하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 250년 동안, 사제도 없고, 미사도 없고, 성사에 참여함도 없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일본 신자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본다면, 더욱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의 때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현 상황은 생각도 못했던 시련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의 때이기도 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다.
- 성체를 모실 수 없다.
- 고해성사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주일 미사 참례하지 않으면, 성부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가?
- 성체를 모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걷고 있지 않은가 왜 외롭다고 느끼는가?
- 왜 성부이신 하느님께 직접 용서를 청하지 않는가?

이럴 때 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이신 성부,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에 신뢰를 두고 살아왔던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절호의 기회이자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감염확대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쳐버린 많은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지구촌화 되고, 변화되어가는 세계의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인해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 지구]는 [인간을 위한 집]이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 무서운 코로나-19 조차 포함해서 [우리 집 - 지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우리 집]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존재나 그들의 외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과 같은 예상 밖의 재난을 만나게 된다면, 곧바로 위기적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현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 전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체험을 하고, 동시에 시련을 겪으면서, 또다시 서로가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누군가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더욱 강하고 깊게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지금은 비탄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 부활의 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사람들이 두려워 집에 몸을 숨겼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에 앞서 갈릴레아에 가시어 기다리고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때, 슬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걸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여러분도 믿고 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교, 사제, 수도자, 신도 모두가 그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으며 모일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때가 오면 기쁘게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의 교회를 재방문하고 싶고, 지금의 시련을 함께 극복한 체험을 척도로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어봅니다.

부디, 앞으로도 보다 굳세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신뢰를 두고, 모든 이들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특히 의료진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며, 감염되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빠른 회복과 이 코로나-19 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성모 마리의 중계를 부탁하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